

글로벌 인재 영입, 미래차 핵심기술력 강화

현대모비스, 커넥티비티 세계 TOP 수준 역량 확보 연구개발 투자비도 5년간 연평균 16% 이상 늘려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우수 인재를 영입하며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독일 콘티넨탈 출신의 인포테인먼트와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칼스텐 바이스 박사를 IVI-SW(인 비히클 인포테인먼트-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상무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바이스 상무의 영입을 계기로 인포테인먼트 독자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제니비(Genivi) 표준 플랫폼 개발, 기술·제품 로드맵 재정립 등을 통해 자사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글로벌 톱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바이스 상무가 인포테인먼트와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는 물론 최근 중요성이 높아진 해킹 대응 등의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우수 인재 영입은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핵심기술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영입한 바라토프 상무는 자율주행과 직접 관련된 센서와 시스템 개발을, 고에츠 이사는 자율주행 시대에



(왼쪽부터)칼스텐 바이스 상무(커넥티비티 SW), 그레고리 바라토프 상무(자율주행 센서), 미르코 고에츠 이사(지능형 헤드램프). 사진=현대모비스 제공

최적화된 헤드램프 개발을 맡고 있다. 이번 영입한 바이스 상무는 커넥티비티와 직접 연관이 있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도 미래차 핵심기술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한 첨단 신기술의 세계적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임원급은 물론 팀장급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연구개발(R&D) 쿼터 점프를 이뤄내 현대글로벌과의 분할합병 이후 존속 현대모비스의 미래차 핵심사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우수 인재 국내 영입

은 기존 패스트 팔로워에서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담고 있다. 이를 위해 R&D 투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지난해 충남 서산에 대규모 첨단 주행시험장을 완공해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고 연구개발 투자비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16% 이상 늘려 지난해는 2013년 대비 81.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부진으로 경영실적이 역성장했음에도 연구개발비는 10% 이상 늘렸다.

이근우 기자 jgm909@

로크웰 오토메이션, 'RAOTM' 개최

스마트 제조 기술 진수 선행

글로벌 자동차 전문기업 로크웰 오토메이션(한국 대표 최선남·사진)이 '똑똑한' 제조현장과 상위 정보시스템을 통합, 최적의 의사결정 환경을 제공하는 전사적제조지능(EMI) 등 스마트 제조의 진수를 선보였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코리아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2018 RAOTM(Rockwell Automation On the Move)'을 열고, 최신 자동화 솔루션과 적용 사례,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RAOTM은 로크웰이 주관하는 가장 큰 규모의 연례 고객 이벤트로, 제조현장과 기업에서 스마트 제조를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다.

로크웰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고객이 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자동화 비전을 제시했다. 또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자동화 투자를 극대화하고, 생산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먼저 최선남 로크웰 오토메이션 코리아 대표는 로크웰의 스마트 제조 비전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Connected Enterprise)'와 관련 솔루션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소개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모든 장치들이 초연결된 환경에서 무제한의 데이터가 시간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이를 분석해 공장·기업의 운영을 최적화하고 신속 정확한 비즈니스 의사결정



을 내려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을 뜻한다.

최 대표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고객이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센서·액추에이터, 컨트롤러, 비주얼라이제이션, 경영정보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 셰이프티 등의 스마트화와 단일 네트워크, 보안기술 등을 기본 요소로, 스마트 제조를 구현해 고객 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권오혁 부장은 스마트 제조의 진화와 최신 플랫폼, 산업보안 솔루션

등에 대해 발표했다.

권 부장은 "제조현장과 상위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EMI는 스마트 제조의 방점을 찍는 솔루션"이라며 "그동안은 경영자가 직관과 경험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제 액션까지 연결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이사는 현장 기기의 스마트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이사는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만드는 현장 기기부터 경영에 필요한 가치 있는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로크웰은 현장 기기, 생산 장비부터 단일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며, 비용절감과 빠른 시운전, 실시간 데이터 연결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은 이를 통해 TCO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늘려있는 '노후' 노후 케이블

③골/전선 내구연한 법제화 시급

전선·노후케이블, 내구연한 법제화 문제 수용가 맞춤형·정책적 차원의 접근 필요

오래된 전선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명이 다돼 사고 가능성이 있는 전선을 진단하고,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즉, 전선·케이블의 내구연한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내에서 전력용 케이블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진단을 통해 전선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와 별도로 일정기간 사용한 뒤에는 새것으로 교체, 노후 케이블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특히 배전 케이블 중 변압기 선로를 구성하는 60mm 전력선의 경우 '당해년을 제외한 26년 경과한 것은 별도의 진단 없이 일괄로 교체한다.'

매년 26년 경과분 진입 케이블에 대한 연도별 교체계획을 수립하며, 올해의 경우 78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99c-km 가량 교체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본 방침은 진단을 통해 케이블 불량을 찾아내고 교체하는 방식이지만, 변압기 선로의 경우 진단이 어려워 일정기간 사용 후 일괄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26년 경과 케이블을 교체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고장 확률과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물론 한전 사례를 수용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결국 수용가 케이블에 대한 맞춤형 접근과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수용가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선 수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정립,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선 수명 연구에 대한 니즈는 산업화로 인해 1990년대까지 가파르게 늘어난 전력기 자체의 상태가 노후화되고 고장 빈도가 잦아지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나 지난 밀양·제천 화재 등 큰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전선 수명 연구의 필요성과 내구연한 법제화가 이슈화되지만, 실행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실제 2014년 세월호 참사 여파로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을 때, 업계 차원에서 전선 및 케이블 수명 조사를 추진한 바 있지만, 결국 무산됐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연구 추진 당시 수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가 너무나 많아, 일괄적인 수명 정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결국, 전선 수명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용 환경과 열화 요인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밀양 참사를 계기로 노후 케이블의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전선 내구연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기조립이 수배전반의 내구연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 같은 의견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기조립은 전력기기 사고 시 작업자의 인명, 경제적 과실이 매우 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구연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적극 추진, 국내의 전력기기 내구연한에 대한 자료나 사례를 수집하는 기초 조사와 연구기관 운영, 공회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선업계도 전선 수명, 내구연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전선·케이블의 수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열화를 가속화하는 각종 변수, 고장·사고 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내구연한 법제화를 위한 방안까지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여기에 성능, 품질이 개선된 케이블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과거 사용하던 구형 전선의 안전성 검토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20~30년 전과 비교해 수용가 내에서 다양한 전자제품이 사용되고, 전력소비가 늘어나는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구형 전선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전선업계 한 관계자는 "일례로 IV 2.0을 사용했을 때 전선에 걸리던 부하는 조명 정도였지만, 이제는 냉장고, 세탁기를 비롯한 다양한 가전제품이 부하로 추가됐다"며 "구형 전선으로 이를 감당하려 한다면, 과부하나 누전 등의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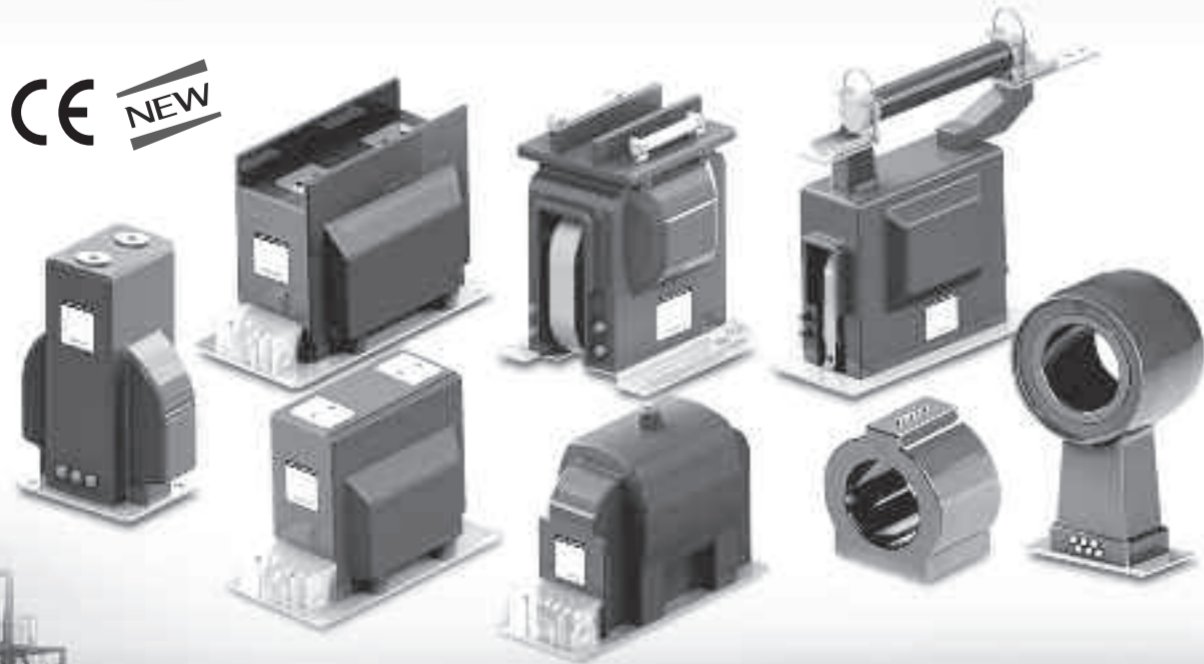
또 다른 관계자는 "노후 케이블과 내구연한 법제화 문제는 국민의 생명, 재산과 관련된 이슈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kube@



CE, Keri, KSA, INNOBIZ, RoHS

고압 계기용 변성기



전력산업의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GLOBAL LEADER - (주)운영

(주)운영은 21세기 전력전자 업계 글로벌 리더로서 끝없는 도전과 변화의 모습으로 고객과 함께 할 것입니다.

수배전반 전력기기 Solution
ELD, GFR, METER, CT/VT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천안대로 2122-20
Tel. 041)411-3800 Fax. 041)411-3838

www.woonyoung.com

- 트랜스포머 ● 노이즈컷 트랜스포머(NCT) ● 영상고조파필터(ZHF) ● 인버터용리액터 ● 모터기동리액터(고압, 저압) ● 직렬리액터 ● 무접점 릴레이(SSR) ● 스위칭 파워서플라이(SMPS) ● 전역제어유닛(TPR) ● 서지보호기 (SPD)
- 노이즈필터 ● 콘덴서 On/Off 용 CAP-TPR ● 배터리 자동충전기 ● 팬(FAN) ● 전력보호계전기 ● 지락검출계전기(GFR) ● 누전경보기(ELD) ● 판넬메터 ● 영상변류기(ZCT) ● 지시계전기(METER) ● 계기용변성기(CT, VT, EVT, SHUNT)

